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 사사기 14:10-20

- 10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 11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 12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풀 삼십 벌과 겔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 13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풀 삼십 벌과 겔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 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 15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 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 17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 18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 19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 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수수께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다시 딘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간 진행되는 결혼 잔치에 블레셋 사람들은 30명의 청년을 데려와서 삼손과 친구를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말에서 먹는 자와 강한 자가 누구인지, 먹는 것과 단 것이 무엇인지 알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그들에게 베풀 30벌과 겔옷 30벌을 줘야 하고, 풀지 못하면 그들이 삼손에게 베풀과 겔옷 30벌을 줘야 한다는 내기를 걸었습니다. 수수께끼의 정답은 먹는 자와 강한 자는 사자이고 먹는 것과 단 것은 꿀인데,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떠 먹은 삼손 외에 누가 답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도 남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졸랐지만 삼손은 “부모님께도 알려주지 않은 답을 어떻게 당신한테 알려주겠느냐”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네 남편한테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네 아

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겁을 먹은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게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해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제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세요.”

삼손은 팬손으로 사자도 때려잡는 사람이지만 여자에게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청을 이기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갈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않았으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영토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베옷과 겹옷을 마련해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한 아내를 덤나에 버려두고 혼자 소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 버림 받은 자기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삼손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과 혼란을 틈타 블레셋을 치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틈을 타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삼손의 짝사랑

삼손의 결혼식은 덤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일주일 내내 블레셋 청년 30명이 신랑인 삼손과 어울렸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고 말씀하는데, 이 풍속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 아닙니다. 삼손의 결혼식은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시하기 위해서 청년 30명을 삼손과 어울리게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에 신부측 사람 30명을 신랑의 친구로 붙여주고 신랑은 그들과 수수께끼를 내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리스에서 애굽에 고용되었던 용병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생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학설이 맞다면 결혼 잔치에 블레셋 사람 30명이 삼손과 어울리고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것은 서로를 경계하거나 적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친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설이 맞지 않더라도 삼손은 아무런 적대감이나 거부감 없이 블레셋 풍속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블레셋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사랑한 것은 블레셋 여인 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 블레셋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향한 삼손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다. 삼손의 아내가 정말로 삼손을 사랑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박 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대책을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렇게하지 않고 남편을 속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친구가 아닌, 베옷과 겹옷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적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 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신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블레셋을 짝사랑하고 있음을 깨 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변덕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이용하셔서 삼손과 블레셋의 연 합과 화목을 깨뜨리심으로 블레셋과 동화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바벨론 사신

열왕기하 20:12-19를 읽겠습니다.

❖ 열왕기하 20:12-19

12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 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4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 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 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16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소서

17 여호와와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 론 사신들에게 왕궁 보물고에 있는 보물과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왕궁에 모아둔 모 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고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히는 훌륭한 왕입니다. 앗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함으로 응답 받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가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왕궁 창고를 보여줬다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파견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앗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인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 병문안을 빙자해서 사 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을 맞이함으로 바벨론의 제안을 받아들였 습니다. 그러나 외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이방을 더 의지한다는 증거 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 나라의 종교와 풍습을 받아들여 그들과 동화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때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앗수르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가 그토록 의지하는 앗수르가 그를 배신하여 유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 그리고 그 말씀은 히스기야 때에 현실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때문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기 아버지가 앗수르를 의지했듯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과 같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사랑함으로 블레셋 풍속에 따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보다 이방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으며 그들의 풍습을 따름으로 동화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배신당하게 하심으로 블레셋과 결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애굽, 앗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과 결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관계

고린도후서 6:14-18을 읽겠습니다.

❖ 고린도후서 6:14-18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관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벨리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또는 사탄의 하수인을 의미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 연합하거나 화목을 도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 안에 우상을 둘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업을 말하는 것이다’, ‘우상의 신전에서 들어가서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등등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든 핵심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과 가치와 사상을 흠모하거나 그들과 동화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대 이스라엘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신자가 불신자들과 전혀 접촉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

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써야 합니다. 그들이 만든 음악을 듣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비를 감안하면 신자끼리만 결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신자와 가정을 꾸림으로 믿음에 파선한 신자들이 많지만, 결혼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경영방침으로 운영하는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가 운영하는 직장에서 성실과 능력을 인정 받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접촉이 잦고 깊을 수록 신자는 성경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삼손이 블레셋을 짝 사랑하다가 블레셋에 동화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문화, 종교, 생활에 몰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방법이 사람이든 공동체든 인생의 목적이든, 내가 사랑하고 호모하여 함께 명예를 땀던 대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던 대상과 결별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그 고통조차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로 여겨 감사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작년 이맘때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다. 그 비난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요. 그때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문구가 유행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출력해서 교회 정문에 붙이기도 했고,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페이스북 대문에 올려놓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안 붙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교회는 일부였고,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물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끄럽고 미안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그 미안함을 앞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평상시에 더욱 성도답게 예수님을 닮은 헌신과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교회가 미안하다는 문구를 써붙이는 것이 몇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먼저 신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이 세속적이고 다양화된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를 그렇게 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죄의식을 갖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자신들을 향해 애정과 이해를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독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신들이 우리처럼 되어야 구원 받습니다”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문구는 복음이 아닌 “교회가 세상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를 사용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손 내미는 교회

9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구도자 예배’가 우리나라에는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도자 예배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불신자를 위한 예배’, ‘젊은 세대를 위한 변화된 예배’라는 명분으로 사도신경, 교독문,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와 같은 예배에 필수적인 요소들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고 ‘사랑’이나 ‘평화’나 ‘자존감’ 같은, 복음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나 영상이나 강연으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구도자 예배는 사실상 예배가 아닌 집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도자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구도자 예배는 신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교회가 틀렸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닮고 싶고 하나님께 용납되기 보다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싶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받아들여달라”고 온몸으로 호소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다원화된 세상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성탄절에 승려를 초청하여 설법을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정죄하는 교회를 오히려 정죄하고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예배나 복음은 뒤로 감추고 문화 교실, 스포츠센터, 복지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잘 하는 사역이 있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그런 일들을 은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성 교회와는 다른 차별화 된 교회라고 온 세상에, 특히 불신자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블레셋 여인을 짝사랑한 삼손처럼 보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차례 덤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국 배신당한 것처럼, 세상과 함께 명예를 메기 위해서 세상의 사랑과 관심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은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유흥에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 같이 비난하며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런 노력에 감화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뺏이 되어 돌아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의 애정과 관심을 구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때에 가장 성도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18-19을 읽겠습니다.

❖ 요한복음 15:18-19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겠지만, 제자들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택함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듯, 세상은 주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민의식에 젖어서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무례하게 행함으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이 종교가 된 세속화된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다원화 된 사회에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삼손과 같이 어떤 규범에 얽매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신자들입니다.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수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더 불신자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며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도 신자는 불신자들과 명예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교 모임에서 한때 애정을 주고 받으며 친목을 도모하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미움 받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자신이 주께 속해 있다는 증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다시 불신자들로 둘러 싸인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삼손이 블레셋을 짝사랑하여 블레셋 풍속을 따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덤나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타인을 배려하되, 그들과 명예를 함께 하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영원한 진리와 영광과 생명의 길로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나 생활 방식을 동경했던 적이 있나요? 그 짝사랑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나요?
2.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명예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3. 교회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과 함께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지체로써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